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포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

한주간 동안 고난 상고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개최 금요일엔 해있는 동안 금식... 탈북난민 위해 헌금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지킨다.

이 한 주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특별새벽기도회와 금식, 특별금요기도회 등 각종 기도회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II·III부 예배 헌금 시간에 바치면 된다.

특별새벽기도회

17일(월)부터 22일(토)까지의 새벽기도회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인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무덤에 장사 되시기까지의 고난의 행적을 상고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새벽 5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갖는다.

십자가에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여신 주님을 묵상하며 지금 처한 갖가지 위기와 고난을 주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회로 삼도록 한다.

특별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는 고난주간 특별연합기도회를 갖는다.

금요일 연합다락방

이번 주 금요일 교구별 모임과 다락방 모임은 다락방별로 갖지 않고 이날 저녁 9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열리는 특별 금요기도회에서 연합다락방 모임으로 대체된다.

부활절 예배와 행사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새벽 5시에 교회에서 드리며 서울시 연합예배는 장충체육관에서 드린다.

다음 주일 I·II·III부 예배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 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있다.

한편 교회학교에서는 각 부서별로 준비한 부활절 행사가 진행된다.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린다.

교사연합기도회 21일(금) 개최

오후 8시 2층 예배실... 성금요일 기도회로 이어져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교사연합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열린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장로)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영성 도야를 위한 연합 기도회를 21일(금) 오후 8시부터 2층 예배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자신과 교회와 교회학교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된다.

먼저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회개의 시간을 갖고 믿어주신 어린 생명들을 위해, 새 예배당 시대를 맞으며 각 부서의 배가 성장과 교사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 기도를 드린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예배당 건축을 위

해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에 앞서 교육위원회에서는 기도회를 위해 지난 주일 각 부서 부장단 회의를 갖고 각 부서의 성장 목표, 태신자, 행사,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나 교사의 특별 기도 제목을 모았다.

기도회는 이날 오후 8시 김태기 장로(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개회 기도로 시작된다. 이어 서기 최중시 장로의 각 부서 교사 출석점검이 있고 이후 30분간 글로리아 찬양단과 함께 찬양의 시간을 갖는다.

각 교회학교와 교사들간의 교제와 상호 이해를 위해 각 부서를 소개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오후 9시부터 전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성득 목사(교육위원회 지도)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된다.

이후 오후 9시 30분부터는 자리를 1층 예배당으로 옮겨 이종윤 목사가 인도하는 성금요일 기도회로 이어지게 된다.

4월 학습·세례식

4월 학습·세례식이 19일(수) I·II부 예배시 거행된다.

이에 앞서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16일(주일) II부 예배 후 403호실에서 있으며 9일과 16일에 각각 실시된 학습·세례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는 17일(월) 오후 7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답은 18일(화) 오후 7시 403호실에서 있다.

이사야 강해

오만한 산헤립

이사야 36장 11 - 22절

앗수르의 산헤립 왕은 오만 방자하여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사탄처럼 행동합니다.

1.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의 왕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유다 백성을 동요시켰습니다. 유다의 대표자들은 앗시리아의 장군 랍사게에게 찾아가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므로 유다 방언 대신 아람 방언으로 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유다 방언으로 말하여 일반 백성들이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동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대리인들은 정중히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선을 악으로 갸았했습니다. 이것은 랍사게에게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달리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유혹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합니다. 이런 선동꾼이 바로 랍사게입니다(14,15절). 이것은 미혹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15절)는 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앗수르는 이 신앙을 깨드리려고 했습니다.

랍사게는 계속적으로 유혹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이민까지도 약속합니다(16, 17절). 또한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유혹하다가 마지막에는 협박을 합니다(18절).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경이 어려울 때를 틈타 하나님을 떠나 악마에게 굴복케 하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연약한 양면성을 알기 때문에 틈만 보이면 선동합니다.

2. 오만한 산헤립은 유다 백성의 믿음을 흔들다

산헤립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된 이 방신과 비교하여 유다 백성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유다 대표자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간접

적으로 해방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앗수르의 침략에서 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 신들이 모두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같은 생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대답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자의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해결이 있는 줄 알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처사로 유다는 내적으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국난 극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백성들에게 여호와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그 하나님께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 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사 36:11 - 22)



이중운 목사

같은 사상이나 언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은 시리아 북방에 있고 스발와임은 메소포타미아 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앗수르가 일찍이 이들을 침략했을 때 그들의 신은 그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시므로 난관에 빠진 유다를 앗수르의 침략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심판관 오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사 37:36). 하나님의 피조물된 우상과 잠신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고수하여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3. 오만한 산헤립에 대한 히스기야의 응전

앗수르의 침략을 받은 히스기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며 부드러운 정책을 취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산헤립의 모욕적 언사에 대항하여

만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미스바에서 회개의 기도하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뢰를 내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므로 패전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삼상 7:1 - 11). 사무엘은 이일을 기념하여 돌을 취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예벰에셀(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이라고 했습니다.

랍사게를 만나기 위해 보냄을 받았던 유다 대표 세 사람은 히스기야 앞에 나아가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국난을 당한 그들의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와 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찾아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만한 산헤립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탄 마귀와 우리를 흔들고 심지어 협박을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애인주일에

동등한 애정이 힘있다

이상진(목사, 사랑부 지도)

요즘 어느 방송사에서는 종종 장애인에게로 카메라를 옮겨 그들의 형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ARS 전화 모금을 하고 있다. TV 화면 한 칸에 시시각각 늘어나는 모금 액수를 볼 때면 방송 매체의 위력에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좋은 일'의 배후에 그늘진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국민들의 최저 생활 보장이라는 복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청자가 아무리 참여해도 장애인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을 상품화하는 현대 사회의 비인격적인 문화 양식에 시청자가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불쌍한 모습이 화면에 극적으로 표현되고 시청자들은 동정심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다.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이런 동정심을 근거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동정의 대상이 되어 비장애인들이 던져 주는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삶을 공유하고 정당하게 나누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기본 명제 중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부질없는 동정심은 무관심 만큼이나 좋지 않다"는 것이다. 동정심은 일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멀지 않아

도와야 할 대상을 짐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제자매요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떳떳한 시민이라는 사실이 조금도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도전 가운데서 서울교회 사랑부의 책임이 무겁게 느껴진다.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해결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교회 모든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부서의 사역이 어렵고 힘들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사랑부 학생들에게 특별한 정성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도 필요치 않다. 보통 아이들과 이웃을 대하듯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동참을 기대하면서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며 사랑부에서 기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제가 장애인 프로그램"이다. 각 가정에 숨겨져 방치되는 제가 장애인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 교회에서 그 문제 해결의 사명이 있다고 확신한다.

둘째, "장애인 형제 자매와의 사랑의 가정 만들기"이다. 사랑부가 보살피는 장애인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일대일로 결연하여 사랑의 가정을 만들고 가정에 초청, 함께 나들이 하

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장애인의 후견인이 되는 일이다.

우리 교우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진다. 사랑부에는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손길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어렵고 긴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는 부서이기에 봉사를 권하고 싶다.누구라도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다.

어려운 이웃,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자.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

- ① 승리의 입성(일요일, 막11:1 - 11)
- ② 성전을 두번째 정결케 하심(월요일, 막 11:15 - 26)
- ③ 유대인과의 마지막 논쟁(화요일, 막 11:27 - 12:40)
- ④ 감람산에서 예언적 강론(화요일 오후, 마24:25)
- ⑤ 예수의 발에 두번째 기름을 부음(화요일 저녁, 눅 7:3 - 50, 첫번째는 막14:3 - 9 참조)
- ⑥ 가롯 유다가 유대인들과 흥정(화요일 밤, 막14:10 - 11)
- ⑦ 베다니에서 휴식(수요일, 복음서에는 없으나 학자들의 견해)
- ⑧ 유월절 준비와 음식을 잡수심(목요일 오후, 막14:12, 31)
- ⑨ 겐세마네에서 체포되심(목요일 밤, 막 14:32 - 52)
- ⑩ 안나스 앞에서의 야간재판(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요18:12 - 13)
- ⑪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막14:53 - 72)
- ⑫ 산헤드린에서 아침 재판(금요일 오전, 눅22:66 - 71)
- ⑬ 빌라도 앞에 서심(금요일 오전, 눅23:25)
- ⑭ 헤롯 안디바 앞에 서심(금요일 오전, 눅 23:6 - 12)
- ⑮ 빌라도 앞에 두번째 서심(금요일, 눅 23:13 - 25)
- ⑯ 십자가에 달리심(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막 15:16 - 41)
- ⑰ 묻히심(금요일 오후 6시이전 곧 안식일 직전, 막15:42 - 47)
- ⑱ 무덤에 머무심(토요일)
- ⑲ 부활하심(일요일 새벽, 막16:1 - 8)

『신약개론』 (이종윤목사 지음) 중에서

희색을 벗고 본 생명의 빛

문형미(집사, 순례자 편집위원)

걱정과 근심... 찬바람 불 때마다 춥다고 하나 들켜있었던 겉옷들이었다. 겨우내 삶을 누르고 있던 이것들을 지금껏 몸을 감싸준 두터운 겨울 스웨터나 외투라고만 생각해왔다.

남산 길에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고 곳곳에서 봄빛 향기들이 피어 오를 때 나는 이 칙칙하고 무거운 겨울 옷을 벗어버리고 옆에 밀어 놓았다.

그런데 어느 봄빛 좋은 날 아침 햇살에 비친 그 옷들을 보고서야 나는 비로소 그 위장됐던 희색빛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봄 소식은 새삼스러운 말이 됐다. 버드나무에 연두빛 물이 오를 대로 오르고 밭상

에는 쭉국이며 냉이 무침이 정겹게 자리하고 있다. 약간만 도시를 벗어나도 작은 개울가에 보라빛 제비꽃과 들꽃들이 생명을 노래하고 있다.

재색으로 그늘은 동해 바다 언덕에도 사람들의 그늘진 표정이 가시지 않은 마을에도 이제 사랑과 형제됨의 바람이 닦칠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피워낼 수없는 이 무지개 꽃들은 이 세상 어떤 꽃보다 향기롭고 곱다.

이 봄 나도 그 아름답기 그지 없는 주님의 꽃들을 함께 피워보고 싶다.

다락방 찬양대회 내달 12일 개최

지정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찬91장)

모든 다락방이 참여하는 2000년 다락방 찬양대회가 다음달 12일(금) 오후 7시 2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다락방 또는 연합다락방이 참여하는 이번 다락방 찬양대회는 각 교구의 다락방들이 지정곡과 자유곡 등으로 그동안 갖고 닦은 찬양 실력을 겨루게 된다.

준비곡은 지정곡으로 찬송가 91장(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과 자유곡 1곡 등이다.

경연 결과는 5월 14일(일) 찬양예배 시간 중 발표된다.

시상은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등에 해당하는 3개 팀에 이종윤 목사님의 저서 및 기타 상품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접수는 이달 23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사무국에 신청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한편 다락방 찬양대회를 위해 찬양위원, 각 찬양대 부대장 및 서기, 교구 간사 등이 참여하는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1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17일(월)에 탈북난민 UN청원 추진위 1주년 기념대회, 20일(목)엔 한기총 교회발전위원회와 총회세계선교실행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21일(금)엔 연세대 채플과 서울 경찰청 예배 설교를 한다.

* 고은화 권사(2교구)는 남북한 부활절 연합

예배 특송자로 초청을 받아 21일(금)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다.

* 권도성·김화숙 성도(9교구 홍마다락방, 최양자 성도 아들·자부) 가정은 14일(금) 드러냈다.

* 임낙식·신영순 집사(9교구 중곡 1다락방) 가정은 8일(토) 원자력병원 정문 앞에 '서울희센타'를 개업했다(☎ 016-262-3784)

* 이번 주 식사는 박순옥 권사·김광옥 집사·서영희 집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에스더전도회는 16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새 예배당 건축 소식

3층 바닥 공사 완료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지난 14일(금) 본당 2층(지상 3층) 바닥 시멘트 타설 공사와 계단 공사를 마쳤다.

달로 의형이 높히 드러나면서 정교하게 설계된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 모습이 새 봄을 맞이하여 파란 짙과 꽃을 활짝 피운 헌터공원과 잘 어울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사 60:7)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케 한다.

당회원 건축 현장 기도회

교회 당회원들은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 후 새예배당 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벽돌이 아닌 기도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바란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육사세례식 금년도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이 8일(토) 오후 2시 육사교회 본당에서 개최됐다.

■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① 4월 17일 - 제 1교시 / 사도행전 연구(이종윤)
 · 제 2교시 / 급변하는 사회 가치관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조용훈)
- ② 4월 24일 - 제 1교시 / 사도행전 연구(이종윤)
 · 제 2교시 / 한국 사회에 기독교 학교의 자리 매김(이원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고난주간 동안 경건과 절제와 참회의 삶을 살도록
2. 제 7학기 서울성경대학교와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